김옥철 "리우서 세계수준 업그레이드"

도로사이클 기대주, 리우행 눈앞

'투르 드 코리아' 대회내내 10위권
MTB서 전향 5년만에 올림픽 찬스

서울시청 김옥철(22·서울시청·사진)은 한국도로사이클의 새로운 기대주다. MTB(산악자전거) 선수로 활약하다 대구체고 2학년 때인 2011년 사이클로 전향했다. 그는 불과 5년 만에 국내도로사이클선수 상위 랭커 2명에게만 주어지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옥철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6'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기량을 뽐내고 있다. 9일 대전을 출발해 아산에 도착하는 총 170.7km의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5일째 레이스에서 그는 3시간43분38초의 기록으로 8위로 골인했다. 개인종합에서도 19시간4분24초로 8위에 오른 그는 대회 시작 이후 줄곧 10위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옥철은 "내 기량이 좋아서 올림픽 출전 포인트가 높은 게 아니다. 나보다 더 잘 타는 형들이 많은데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올림픽 출전권을 지켜내는 게 1차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서 MTB 선수로 활약한 것이 내리막 구간을 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덕분에 도로사이클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옥철은 투르 드 코리아를 통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프로-콘티넨탈 팀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레이스 도중에도 그렇지만, 경기를 앞두고 지키는 식단, 훈련방법 등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았다. 조금씩 따라해보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꾸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도로사이클선수가 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림픽에는 유럽의 정상급 프로 라이더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옥철은 "올림픽에 나가면 또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얼마나 잘 타고,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를 보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리우에 반드시 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산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복기왕 아산시장 "투르 드 코리아, 아산시 스포츠 열정 키워"

"시민들 모두 자전거 보험 가입 중"

"자전거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에 투르 드 코리아의 건각들이 자전거 바람을 더 많이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기왕(48·사진) 충남 아산시장은 "선수들이 아산시 경계를 넘어 외암민속마을과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지날 때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고장임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산시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돼 34.5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있다. 곡교천변 자전거도로는 억새 군락지와 은행나무길이 어우러져 새로운 명소가 됐다.

복 시장은 "신정호와 온양온천역 등에서 공영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도 마련했다"며 "시가 시민 전체를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시에서는 10월 열릴 국내 최대의 스포츠 제전인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가 9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고, 환경과학공원의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이미 끝났다. 복 시장은 "올해 전국체전은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는 만큼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전국체전을 계기로 대폭 확충될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스포츠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그는 "3월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이 우리 시로 연고지를 이전했다. 스포츠 마케팅에 더욱 주력해 아산시를 프로 스포츠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산 | 지명훈 동아일보 기자 mhjee@donga.com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23번)가 9일(한국시간)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와의 2015~2016시즌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 3차전 홈경기 도중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제임스는 32점·11리바운드·6어시스트의 맹활약으로 클리블랜드의 첫 승을 이끌었다.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32점·11R·6AS…이 악문 르브론, 3차전에선 웃었다

골든스테이트 120-90으로 대파
클리블랜드,파이널전 2패 끝 첫승

'킹 르브론'이 모처럼 웃었다.

르브론 제임스(32)가 이끄는 클리블랜드가 9일(한국시간)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2015~2016시즌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 3차전 홈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를 120-90으로 대파하고 2패 끝에 첫 승을 따냈다. 제임스는 32점·11리바운드·6어시스트의 전천후 활약을 펼쳤다.

제임스는 1·2차전 패배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무기력하게 2연패를 당하자 팀의 간판스타인 그의 경기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퇴)과 비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한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이에 제임스는 3차전을 앞두고 현지 언론에 "나는 정통 스코어러가 아니다. 리바운드나 어시스트에만 치중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다 하는 선수다. 나는 마이클 조던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팀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다. 온 힘을 다해 공격과 수비를 할 것"이라며 3차전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임스는 자신의 말대로 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냈다. 공격에선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하는 한편 자신에게 상대 수비가 몰릴 때는 패스를 통해 카이리 어빙, 리처드 제퍼슨, JR 스미스 등 동료들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줬다. 또 동료들의 공격을 위해서라면 스크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수비에서도 뇌진탕 증세로 결장한 파워포워드 케빈 러브를 대신해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어빙은 30점·4리바운드·8어시스트로 제임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다.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간판스타 스티븐 커리가 19점, 클레이 톰슨이 10점에 그치면서 1·2차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양 팀의 4차전은 11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도마갈스키 마지막 5km 독주…개인종합 1위

'투르 드 코리아 2016' 5일째

엄청난 페이스 시속46km 기록
프로-콘티넨탈 팀원 위용 과시

원 프로 사이클링 팀의 캐롤 도마갈스키(영국·사진)가 한 수 위의 기량으로 '투르 드 코리아 2016' 개인종합 단독선두로 나섰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국제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6' 5일째 레이스가 9일 대전과 아산을 연결하는 170.7km 구간에서 펼쳐졌다. 도마갈스키는 3시간41분37초의 기록으로 2위 그룹을 2분 이상으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도마갈스키는 개인종합에서도 19시간2분5초로 1위에 올랐다. 3구간에서도 우승했던 도마갈스키는 5일째 레이스를 통해 개인종합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날까지 개인종합 1위를 달렸던 브렌튼 존스(드라팍)는 도마갈스키에 2분1초 뒤져 2위로 밀렸다. 서준용(28·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시간4분23초로 개인종합 7위에 올라 한국선수 1위 자리를 지켰다.

팀 등급이 프로-콘티넨탈인 원 프로 사이클링의 일원인 도마갈스키는 이날 시속 46km를 기록했을 정도로 레이스 초반부터 페이스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레이스 종반까지 5명의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했지만, 페이스를 늦추지 않은 도마갈스키를 따라갈 수 있는 경쟁자는 없었다. 결국 다른 선수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면서 도마갈스키는 마지막 5km 정도를 남기고 독주했다. 도마갈스키가 세계 정상급 기량을 과시한 덕분에 이날 레이스 전체가 예정보다 약 15분 정도 빨리 끝났다.

팀 종합에선 도마갈스키를 앞세운 원 프로 사이클링이 57시간11분17초로 선두를 지켰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위, 비노 4-에버(카자흐스탄)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대회 6일째 레이스는 10일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충주세계무술공원으로 골인하는 194.6km 구간에서 열린다.

아산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군인 레슬러 김관욱 "충성! 리우행 신고합니다"

대표팀 2차선발전 자유형 86kg 우승
57kg 윤준식, 판정승으로 막차 합류

2016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김관욱(왼쪽)과 윤준식(오른쪽)이 레슬링 국가대표팀 박장순 감독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양구 | 고봉준 기자

'리우행'을 확정짓고 외친 김관욱(26·국군체육부대)의 힘찬 경례 소리가 장내를 휘감는 가운데 관중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김관욱은 9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남자 자유형 86kg 2차선발전에서 이동욱(칠곡군청)을 7-2로 제치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선발전과 5월 터키에서 열린 세계 2차 올림픽 쿼터대회에서 리우행 쿼터를 확보했던 김관욱은 이날 우승으로 올림픽을 향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1월 국군체육부대(상무) 입대 후 상병으로 복무 중인 김관욱은 2차선발전 우승 후 힘차게 '충성'을 외치며 환하게 웃었다. 그를 지도한 상무 이중섭 감독과 대표팀 박장순 감독은 진한 포옹으로 기쁨을 대신했다. 제대를 4개월 앞둔 그는 앞으로 두 달 남은 리우올림픽에서 값진 성과를 꿈꾸며 막바지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관욱은 첫 번째 상대였던 권혁범(삼성생명)을 12-5로 가볍게 제압했다. 1회전 초반 권혁범에게 링 밖으로 밀려 1점을 먼저 뺏겼지만, 이후 연속으로 공격에 성공해 1회전을 7-1, 2회전을 12-5로 마무리했다.

결승전은 경기막판 성공한 십자돌리기 2방이 결정적이었다. 1회전 상대 이동욱의 주의 누적과 왼쪽 인사이드 태클로 3-0으로 리드를 잡은 김관욱은 경기종료 10여초를 남기고 상대의 다리를 꺾는 십자돌리기를 연이어 성공시켜 4점을 추가해 7-2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리우행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은 자유형 57kg 윤준식(25·삼성생명)이었다. 윤준식은 뒤이어 열린 결승에선 김성권(성신양회)을 2-2 판정승으로 누르고 대표팀에 막차로 합류했다. 윤준식은 0-1로 뒤진 2회전 1분15초 인사이드 태클을 성공시켜 2-1로 뒤집었다. 그러나 소극적 플레이로 벌점 1점을 뺏겨 2-2로 결승전을 마감했다. 스코어가 같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따낸 선수가 이긴다는 규정에 따라 2차선발전 우승과 리우올림픽 진출권을 동시에 획득했다.

경기 후 김관욱은 "올림픽에서 그레코로만형의 금메달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알지만, 서로 합심해서 꼭 메달을 목에 걸고 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준식은 "올림픽에 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메달을 따는 걸 목표로 삼겠다"며 "올림픽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죽기살기로 준비하겠다"며 두 손을 불끈 쥐었다.

이로써 리우올림픽에 최종 진출한 남자레슬링대표팀 명단은 자유형 김관욱과 윤준식, 그레코로만형 85kg 김현우(28)와 66kg 류한수(28), 59kg 이정백(30·이상 삼성생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전지훈련과 국제대회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친 뒤 다음달 30일 미국 콜로라도로 건너가 현지 적응훈련에 나선다.

양구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KBL, 신인드래프트·순번추첨 이원화

KBL은 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인 드래프트의 구단 순위 추첨과 선수지명 행사일자를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순번 추첨을 앞당겨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프로농구(NBA)의 경우, 순번 추첨과 드래프트 사이에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대표 이종현, 강상재(이상 고려대), 최준용(연세대) 등 주목할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 올해 신인드래프트는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순번 추첨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